

# 삼성전자 기업 분석

S A M S U N G E L E T R O N I C S

SAMSUNG

# About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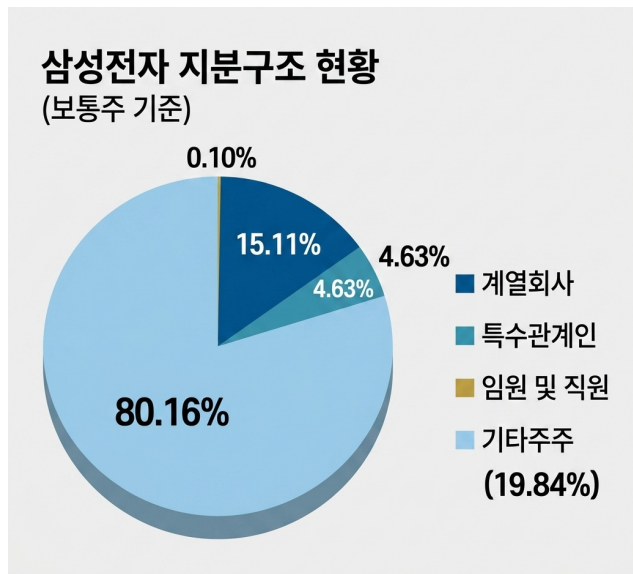
## 기업 개요

기업명 | 삼성전자  
 설립일 | 1969. 1. 13.  
 상장 여부 | O  
 회장 | 이재용  
 시가총액 | 1,604조 8,035억원  
 주요 사업 | 전자 및 반도체 생산/판매

## 주요 연혁

- 1969년: 삼성전자공업 설립
- 1974년: 한국반도체 인수 및 반도체 사업 진출
- 1983년: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선언
- 1992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2009년: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출시
-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1위 달성
- 2020년대: AI·파운드리·첨단 반도체 중심 미래 기술 기업으로 전환

## 지분 구조



## 매출 비중

(단위 : 억원)

부 문	매출유형	품 목	제57기	제56기	제55기
DX 부문	제·상품, 용역 및 기타매출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시스템, PC 등	1,879,673	1,748,877	1,699,923
DS 부문	제·상품, 용역 및 기타매출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	1,301,282	1,110,660	665,945
SDC	제·상품, 용역 및 기타매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등	298,417	291,578	309,754
Harman	제·상품, 용역 및 기타매출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포터블 스피커 등	157,833	142,749	143,885
기 타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등		△301,146	△285,155	△230,152
합 계			3,336,059	3,008,709	2,589,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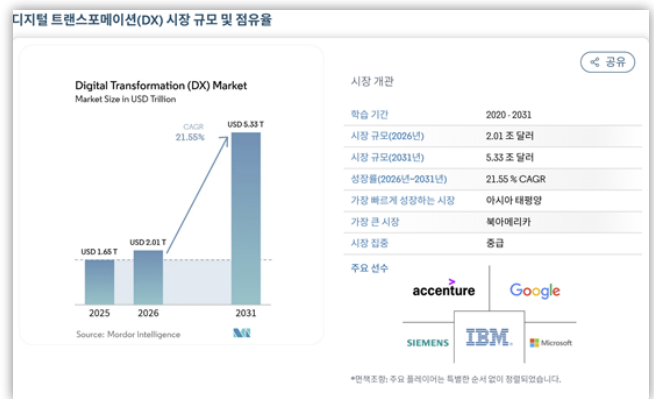
# Industry Analysis

## 산업 개요

삼성전자는 반도체(DS), 완제품(DX), 디스플레이(SDC)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종합 IT·전자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TV·가전, OLED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글로벌 IT 및 반도체 산업은 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전달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기술 집약 산업이다. 최근 해당 산업은 단순한 기기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반도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DX시장 (Device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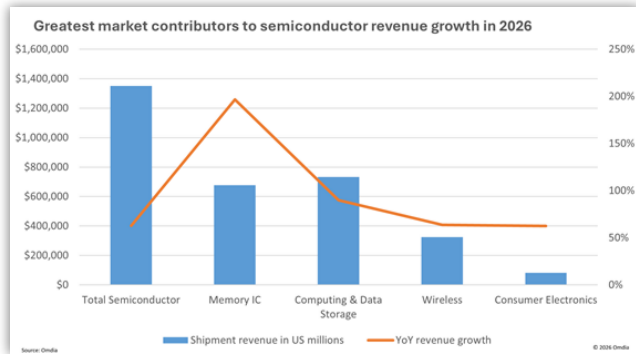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MX(Mobile eXperience), VD(Visual Display), DA(Digital Appliances), 네트워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완제품 중심 사업부문이다. 주요 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생활가전 및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프리미엄 제품과 온디바이스 AI 기능 중심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TV·생활가전 시장 역시 초대형·프리미엄 제품과 AI 기반 스마트홈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기기 간 연결성과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DX 시장은 온디바이스 AI와 스마트홈·IoT 생태계 확산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생성형 AI 기반 기능이 스마트폰·TV·가전에 확대 적용되며 AI 중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경쟁력과 디바이스 간 연결성이 중요해지며, 시장 규모는 2031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Industry Analysis

## DS시장 (Device Solutions)

반도체 산업은 AI 중심으로 재편되며 HBM, 서버용 DRAM, 고성능 SSD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HBM4, 첨단 패키징, 2nm 이하 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와 모바일 AP 중심의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역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D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생성형 AI 확산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HBM과 서버용 DRA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와 첨단 공정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은 AI 중심으로 재편되며 HBM, 서버용 DRAM, 고성능 SSD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HBM4, 첨단 패키징, 2nm 이하 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와 모바일 AP 중심의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역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D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생성형 AI 확산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HBM과 서버용 DRA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와 첨단 공정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 SDC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폴더블 기기 확산으로 OLED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블릿·노트북 등 IT 기기에서도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초대형·프리미엄 TV와 QD-OLED 중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고화질·고주사율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증가로 프리미엄 패널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IT 기기와 자동차 디스플레이까지 OLED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중장기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2023~2028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RISK

## HBM4 공정 전환에 따른 기술 경쟁 및 수출 부담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공정 기술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해 경쟁 업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경우, AI 반도체 시장 내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및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전략과 생산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북미 지역 반도체 투자 확대와 중국 생산기지 운영 사이에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조정 가능성,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따라 설비투자 효율성과 공급망 운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수익성 및 투자 계획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노사 관계 변화 및 인적자원 관리 리스크

최근 삼성전자는 성과급 체계와 처우 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되면서 조직 운영 측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업부문 및 직군 간 이해관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 결속력과 내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핵심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인적자원 관리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인재 유출이나 조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단독] 삼성전자 파업 경고한 JP모건..."영업익 최대 12% 감소한다"

기사입력 : 2026년05월08일 14:49 | 최종수정 : 2026년05월08일 15:54



### 트럼프 '반도체 통행세' 압박... 부담 커진 삼성·SK 초긴장



임주형, 장진혜 기자  
입력 2026-01-16 00:49 | 수정 2026-01-16 00:49

# Investment Highlights

##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과거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팔려서 오던 사이클과 다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는 생존형 투자구간  
투자 가치: AI 연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HBM, 고용량 DDR5)가 필수적. 그런데 이런 고성능 반도체는 만들기 어려워서 생산 라인(Capa)을 많이 차지. 즉,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삼성전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초장기 호황으로 이어짐

## CXL (Compute Express Link) 시장 주도

CPU/GPU의 지능을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SSD처럼 메모리를 무한 확장하는 기술.

- 삼성만의 특이점
- 1. 세계 최초의 타이틀과 표준 주도: 삼성전자는 2021년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CXL 1.1, 2.0, 그리고 최신 3.0 제품까지 풀 라인업을 가장 빠르게 선보임.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 CXL 컨소시엄의 이사회 멤버로서 전 세계 기술 표준 자체를 설계.
- 2. HBM의 한계를 넘는 용량의 삼성: 경쟁사가 HBM(속도)에 집중할 때, 삼성은 초고용량에 집중. 삼성의 CXL 기술은 기존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8~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데, 이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돌려야 하는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
- 3. 턴키(Turn-key) 생산 능력: 삼성은 CXL 컨트롤러 설계부터 D램 제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이는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CXL 규격을 가장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압도적 속도 경쟁력으로 이어짐

## GAA 2나노 공정:

### TSMC의 독점을 깰 유일한 4차원 무기

반도체는 미세해질수록 전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새어 나가는 현상(누설 전류)이 발생. 기존의 핀펫(FinFET) 방식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3면에서만 통제했지만, 삼성전자가 도입한 GAA(Gate-All-Around)는 통로를 4면(All-Around)으로 완벽하게 감싸서 전력 누수를 막음.  
투자 가치: 배터리가 생명인 모바일 기기나, 전기세가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효율 30% 향상은 엄청난 매력. 경쟁사인 TSMC는 2나노부터 이 기술을 처음 도입하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먼저 매출 맞으며 수율을 잡아냄. 엔비디아나 애플이 TSMC에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 온디바이스 AI: 클라우드 비용 0원, 보안 100%의 자체 생태계

챗GPT 같은 클라우드 AI는 질문을 서버로 보낸 뒤 답을 받아옴. 이 과정에서 서버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내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음. 반면 온디바이스 AI는 기기(스마트폰, 가전) 안에 내장된 신경망처리장치(NPU)가 인터넷 연결 없이 스스로 연산하고 답을 냄.  
투자 가치: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매년 5억 대가 넘는 기기(갤럭시, TV, 냉장고 등)를 판매. 이 모든 기기가 자체 AI로 연결되어 내 일상을 알아서 관리해 준다면, 소비자는 절대 애플이나 중국 제품으로 넘어갈 수 없는 초강력 락인(Lock-in) 효과에 빠짐. 하드웨어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

## 온디바이스 AI: 클라우드 비용 0원, 보안 100%의 자체 생태계

- 현재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라는, 제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 중.시가총액이 무겁다는 편견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하고 있음.
- 수익의 질 변화: 과거의 영업이익이 양적 팽창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이익은 HBM, 고용량 DDR5 등 고마진 제품에서 나오는 질적 성장의 결과.
- 기술 선점의 복리 효과: 현재의 57조 원은 아직 CXL과 2나노 GAA 기술이 매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수치. 신기술들이 본격 양산 궤도에 오르면 이익의 기울기는 한 번 더 가팔라짐



H A N S A W E

| 기업분석 및 자료제작  
| 구지호

| 산업 및 위험요인 분석  
| 박예원

| 투자포인트 분석  
| 장재원